

시인의 마을



눈에 담기 좋은 꽃들도
나른한 바람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다.
비에 있는 듯 비어 있는 짙은 의자 두 개도
같은 듯 다르게 제 맘대로다.

이름 없는 빈 의자만이
꽃이 꽃을 피워 만든 길이다.
기약 없이 흔들리는 동공 가득
첫사랑이 피어나던, 아득한 철부지 꽃밭이다.

결국, 바람 따라 소리 없이
나무도, 의자도, 꽃들도, 첫사랑도, 제 맘대로다.
꽃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 속절없는 터줏대감 되어
세월 속에 나올 줄을 몰랐다.

꽃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다

시시를 담다

길이 있다. 의자가 있다. 나무도 있다. 찌르르 찌르르 새 소리가 요란하다. 앞을 바라보니, 눈이 환짝 열린다. 예쁜 꽃이 반발하였다. 한 쪽의 그림 같다. 자연과 하나 된 눈에 담기 좋은 꽃도, 비어 있는 듯 비어 있는 짙은 의자 두 개도, 같은 듯 다르게 제 맘대로다.

길에는 꽃이 꽃을 피운다, 그 옆에, 이름 없는 빈 의자는 허전하다. 환짝 웃으며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도 아득한 첫사랑이 그리워 기다리는 모습은 아닐까? 항상 누군가를 위해 소리 없이 등을 내주는 의자, 그 의자의 삶이다. 꽃도, 바람도, 구름도, 새들도, 운동장에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의자가 있다. 나무도, 의자도, 꽃들도, 제 맘대로인 첫사랑도 지나가 버렸다. 결국, 그들이 바람 따라 꽃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길, 그 길에는, 바람이, 구름이, 꽃들이, 새들이, 그 누군가가, 이 속절없는 의자의 터줏대감 되어 세월 속에 나올 줄을 모른다. 해가 고개를 내민다.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전주 종교문화여행 성지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 치유 순례지로 인정받았다. 전주는 서문교회와 전통성당, 치명자성지, 동학혁명기념관 등 다양한 종교 문화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도시이다.

전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종교 치유 순례길 사업은 종교 문화 자원과 예술 공간을 연계한 관광 코스를 거니는 사업이다.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원동력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 곳곳에는 △서문교회, 예수병원, 신중학교, 기전학교 등 개신교 종교 자원 △전통성당, 전주교구, 치명자성지, 초록바위 순례지 등 천주교 종교 자원 △승암사, 동교사, 남교사, 정혜사, 서교사 등 불교 종교 자원 △전북교구, 교동교당, 한벽루 등 원불교 종교 자원이 풍부하다.

그리고 △전주향교, 선비문화관 등 유교 자원과 △동학혁명

기념관, 녹두관 등 천도교 관련 자원 등 다양한 종교 자원이 풍부하다. 각각의 장소에 서려있는 역사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다.

더욱이 올해 △전주교 세계 평화의 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불교 세계 명상센터가 준공됐다. 전주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당일 여행 코스와 1박 2일 여행 코스 등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관광 코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 전문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보조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전주시가 종교 관광의 성지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주시는 향후 종교 치유 순례길 활성화를 위해 각종 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 바란다.

이강주 세계품평회 금상

전주 이강주의 제품인 '이강주25'가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중 하나인 영국 ISC서 금상을 수상했다.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주 전주 이강주(梨薑酒)가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전주 이강주는 우리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9년 '영국 LEEGANGJU UK지사'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영국 '2022 ISC(International Spirit Challenge)'는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로 꼽힌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한 ISC는 해마다 전 세계 최고의 위스키 및 주류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가운데 하나다.

이강주는 대한민국 3대 명주로 손꼽히는 술이다.

전주 이강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9호이자 전북 무형문화재 6호인 조정형(82) 명인이 지난 1991년 제조 면허를 받았다.

2003년에는 전주시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 전주 우수 상품으로 지정됐다.

'이강주25' 제품은 백미와 보리쌀, 누룩을 섞어 발효한 후 30~35도의 전통 소주에 △술 빛깔을 맑게 하고 맛을 당기게 만드는 '배' △위의 자극을 해소 시켜주는 '생강' △피로 회복과 중화 작용을 돕는 '울금' △매콤한 맛을 주는 '계피' △달콤한 '별꿀'이 어우러져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장점이다.

조정형 명인은 2007년 '우리술 역사박물관'을 만들었다.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 무료 관람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 이강주는 바이 전주 우수 상품으로 지정된 후 품질 향상과 제품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각종 특산물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와 판로 개척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기업으로 변창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나이지리아 교도소 피습, 수감자 300여 명 탈출



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이부자의 한 교도소가 공격받아 현장에 불에 탄 차량이 놓여 있다. 현지 관계자는 신원 미상의 무장괴한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혔으며 수감자 300여 명이 탈출했으나 대부분 붙잡혔다고 주장했다.

지연제 뿌리는 에어 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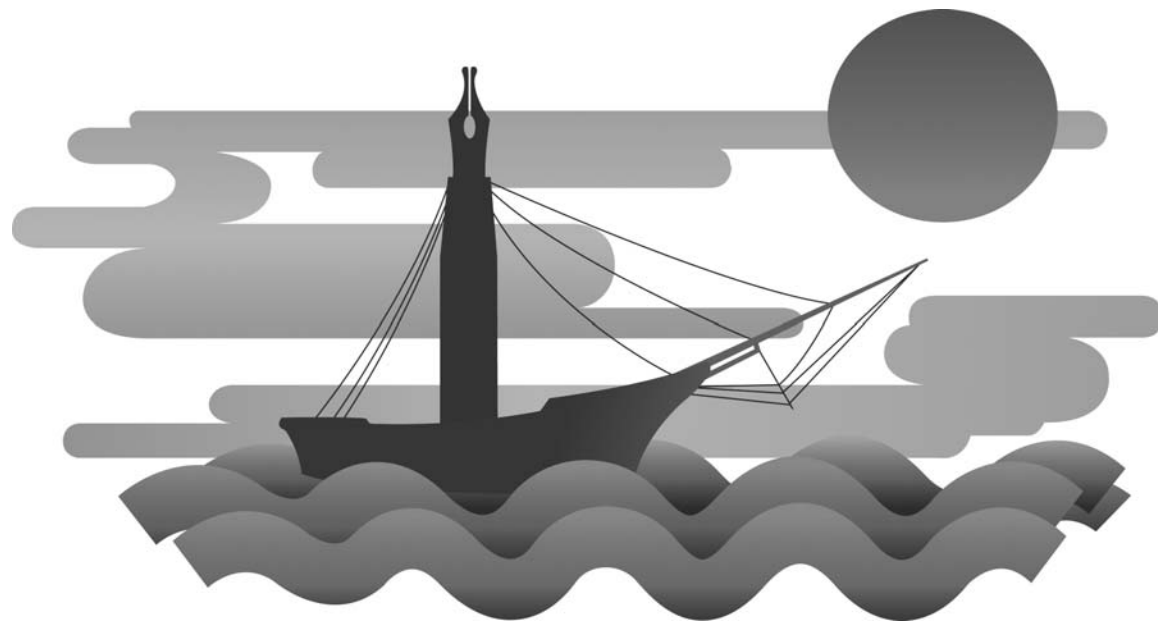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아마도어 카운티의 파인 에이커스 커뮤니티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상공에서 신발 '일렉트라 피이어'를 진압하기 위해 지연제를 뿌리는 에어 탱커를 바라보고 있다. 발화 3일째인 '일렉트라 피이어'로 6일 오전까지 약 16㎢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